

건강 칼럼

‘자가 골수 세포 주사’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

“요즘 자가 ‘골수 세포 주사’라는 게 있단데, 저도 맞을 수 있을까요?” 70대 초반 어르신이 무릎이 아파다며 내원했다. MRI 검사를 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아있었지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권했다.

‘자가 골수 세포 주사’의 정식 명칭은 ‘자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다. 이를 줄여서 자가 골수 세포 주사 혹은 자가 골수 농축액 주사, BMAC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주사라고 한다.

자가 골수 세포 주사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중기 무릎관절염 통증 완화와 기능개선에 대한 효과를 인정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바 있다.

시술 방법은 환자 본인의 골반 위쪽 부위 장골능에서 골수를 뽑고 특수 키트를 이용해 원심 분리기로 분리한 다음, 무릎 연

골에 좋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포함된 흡인 농축물을 환자의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것이다.

자가 골수 세포 주사 효과는 환자 상태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부터 나타나기도 하며 보통 3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3개월 이후 통증이 줄어들어 걷기는 물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많다.

실제 본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가

골수 세포 주사 치료를 받은 중기(2~3기) 무릎관절염 환자 100건(89명, 여성-62명, 남성-27명)을 약 1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시술 후 3개월까지 개선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이후 12개월까지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논문에 의하면 보통 1~2년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한다.

통증완화와 기능개선 조사에서도 통증 정도를 나타내는 통증평가척도(VAS: Visual analog scale)가 시술 전 평균 4.4점에서 시술 3개월 후에는 0.7점으로

대폭 감소했다. 12개월 후에도 0.4점으로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했다.

또한 통증과 무릎 각도를 평가하는 슬관절 점수(KSS: Knee Society score)와 경직 및 계단 보행 정도, 보조기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무릎기능점수(knee and function scores)도 비슷한 추세로 개선된 결과를 확인했다. 시술 전 평균 85.4점이었던 슬관절 점수는 3개월과 12개월 후 각각 97.0점과 98.0점, 무릎기능 점수는 시술 전 평균 69.1점에서 각각 81.4점, 85.2점으로 개선됐다.

효과 지속 정도에 따라 재치료를 의논할 수 있다. 관절염 진행 상태는 관절염 환자가 무릎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정기적인 검사와 신체진찰 등을 통해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태 현

청천병원 관절클리닉 진료원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21일(현지 시간) 멕시코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여성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시비피 원’(CBP One) 앱 사용 중단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멕시코 이민 담당 직원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하면서 CBP는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앱 사용을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예약도 중단됐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이 앱을 통해 이민자들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이민할 수 있었다.

이치로, 아시아 선수 첫 MLB 명예의 전당 입성



미국프로야구(MLB) 전 시애틀 매리너스 외야수 이치로 스즈키가 21일(현지 시간) MLB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치로는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 결과 만장일치에 1표 부족한 99.75%의 득표율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사설

이순재 KBS 연기대상

연기 경력 68년의 현역 최고령 연기자인 배우 이순재가 ‘2024 K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KBS뿐 아니라 역대 방송 3사 연기대상 수상자 가운데 최고령 기록이다.

1984년생인 이순재는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연극 무대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 문제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하차해 휴식 기간을 가졌다.

이순재는 지난해 9~10월 방영했던 수목드라마 ‘개소리’에서 주인공인 원로배우 ‘이순재’를 연기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순재는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후배들의 큰 박수 소리를 뒤로 하며 무대에 올랐다.

그는 “연젠기는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귀한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62년 KBS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드라마 ‘나도 인

간이 되려나’에 출연했던 기억을 회고했다.

그는 “연기대상은 이순신 장군이나 역사적 인물을 연기했던 출연자들이 주로 받아왔고, 또 60대가 넘으면 주로 공로상이 주어졌는데 60이 넘어도 연기로 평가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순재는 함께 출연했던 강아지들을 비롯해 동료와 스태프들에게 공을 넘겼다. 13년째 석좌교수로 일하는 가천대 학생들에게도 감사사를 표했다.

그는 “학생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왔는데 가르칠 시간이 안 맞았다.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교수 자격이 없다고 하니 학생들이 걱정하시 마시라, 모처럼 드라마하는 데 잘하시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말했다. 이순재는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느 지방의원 청탁 논란

지자체 의원들의 각종 비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위를 이용한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여전하다.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파렴치한 일부 의원들 때문에 선량한 다른 의원들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기 일수다. 최근 전북도의회 모 의원이 수십억 원대 에너지 사업을 전북도에 청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중순 모 의원은 전북도 공무원들을 불러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30억 원 규모의 원격 사물인터넷 기술로, 청사에 적용하면 해마다 4억여 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업을 제안한 업체 관계자들도 동석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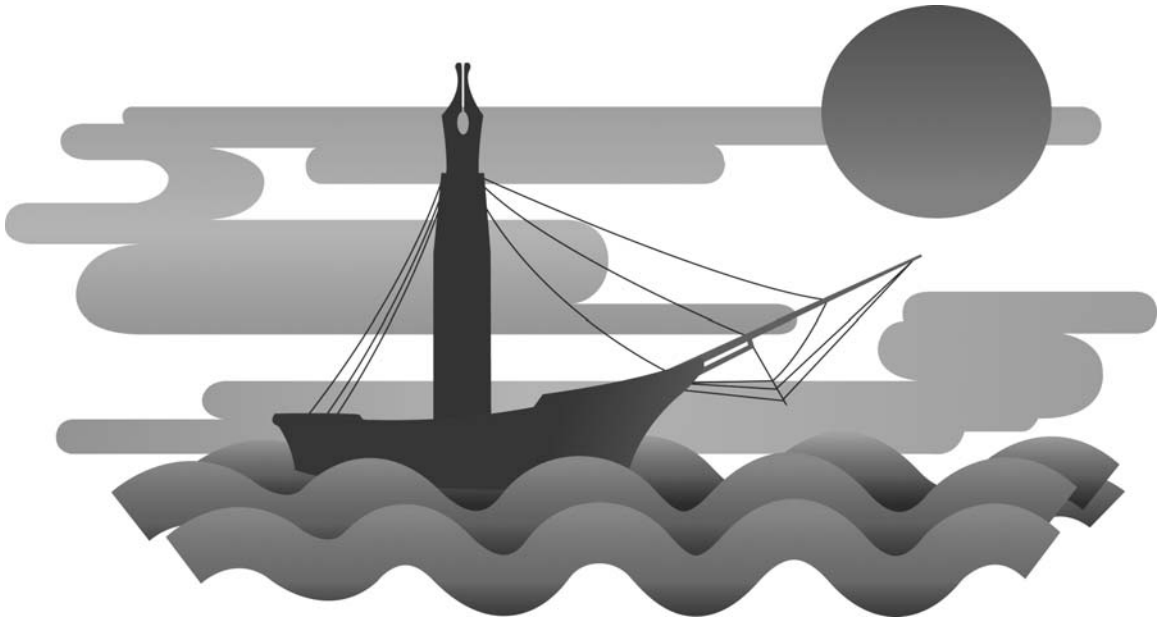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그런데 설명이 끝나자 불미스러운 발언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서 예산을 깎고, 각종 자료 제출도 요구하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사업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큰 압박과 부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시스템을 도입해 절감한 예산을 직원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 관다해 제안했고, 사업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노조는 부정 청탁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보복성 자료 요구를 하겠다는 등 이런 부당 행위는 아주 협박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문화관광재단 본부장 인사에 불만을 제기한 뒤 전체 예산의 41%, 87억 원을 깎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